적십자 여성봉사자문위총회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적십자 제51차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총회에서 전국 시·도 대표들이 적십자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3 성적 뚝 떨어졌다

세차례 모의고사 1등급 학생 비율 급감

진보교육감 이후 겨울방학 자율학습 규제 등 영향

진보교육감 체제 이후 겨울방학 자율학습 규제 등으로 우려되던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상위권 성적 하락이 현실화돼 대학 입시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고교생 상위권 성적변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등급 비율과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시 교육청은 현재 3학년이 2학년때인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 등 3차례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1등급 변화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학생들의 성적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모의고사 결과 분석 자료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모의고사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 치러졌으며 자율형 공·사립고를 포함한 광주지역 일반계고 46곳이 시험을 치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수는 지난해 3611명(6월)과 3568명(11월)에서 올해는 3099명(3월)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비율로 따지면 7.8%에서 7.7%로 줄었다가 올해 7.2%로 감소추세가 확연했다.

영역별로 언어는 1431명(8.7%)에서 1211명, 1074명으로 줄었으며 수리-나는 753명(9.8%)에서 724명(9.6%), 올해 649명(8.4%)로 줄었다. 수리-가는 지난해 544명(6.5%)에서 598명(7.4%)로 50명 남짓 늘었다가 올해 483명(7.0%)으로 감소했다.

■광주 고3 모의고사 1등급 추이 (단위:명)

영역	2011년6월	2011년11월	2012년 3월
언어	1431	1211	1074
수리가	544	598	483
수리나	753	724	649
외국어	883	1035	893

〈자료:광주시교육청〉

외국어는 883명(5.8%)에서 1035명(6.5%)으로 증가했다가 893명(6.0%)으로 다시 줄었다.

모의고사를 본 전체 일반계고 46곳 가운데 지난해 2차례 평균과 올해 성적을 비교해도 최하위권(44위-46위) 학교 3곳을 제외하곤 모두 떨어졌다. 지난해 1등급 수가 100명이 넘었던 학교가 14곳이었으나 3월 평가에서는 10곳에 불과했다.

일선 학교는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겨울방학 자율학습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강제적 자율학습 참여금지, 의무방학일수 준수,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제한 등을 지시해 일선 학교들이 반발했었다.

광주지역 한 고교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학력신장을 등한시했던 교육청의 자업자득이다. 일선 학교에서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도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수시확대 등 대학전형 다양화 등으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 학부모의 뒷받침 부족 등이 맞물린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카이스트 학생 또 자살

광주과학고 출신… "진로 고민된다" 유서 남겨

지난해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로 파장을 몰고왔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7일 또다시 졸업을 앞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한 학생은 광주과학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17일 새벽 5시40분께 대전시 구성동 KAIST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4학년 학생 A(22)씨가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던 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고 기숙사 방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A씨가 찍힌 CCTV 영상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룸메이트와 가족 앞으로 각각 메모형식의 유서 1장씩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룸메이트에게 보낸 유서에는 '미안하다. 먼저 간다'라고 남겼고, 가족에게 '열정이 사라지고 진로가 고민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학기초부터 A씨와 함께 생활한 룸메이트는 "전혀 자살의 낌새를 눈치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살 소식을 접한 A씨의 모교는 술렁였다. A씨를 지도했다는 한 교사는 "차분하면서도 다재다능한 학생이었는데 안타깝다"며 "가정환경도 좋고, 화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AIST측은 이날 오전 총장 주재하에 보직교수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KAIST에서는 지난해 1월 전문계고 출신 '로봇영재' 조모(19)군을 시작으로 같은해 4월 7일 과학영재학교 출신의 휴학생인 박모(19)군까지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4월 10일에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박모 교수가 자살해 큰 충격을 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등산파 가입 3명 법정서 "조폭 아니다" 위증했다 벌금형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20대 3명이 법정에서 조폭이 아니라고 위증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 등 광주 무등산파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과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무등산파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소주방에서 무등산파 모임에 참석한 뒤 1년 선배 조직원인 김모씨 등이 조직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백종헌 회장 사전영장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백종헌(60) 프라임저축은행 회장 겸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에 걸쳐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초인종 눌러 확인 빈집털이

쌍나팔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해 금반지 등을 훔친 박모(24)씨 등 20대 2명이 경찰에 덜미.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A(여·28)씨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혼예물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 당하고 말도 못하고 몸져누운 피해자 A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등을 찾아 돌려줘 칭송.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철인 3종경기 상금 가로채

광주경찰, 사무처장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대회 참가 선수들의 상금을 횡령한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사무처장 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태안그레이트맨 국제철인3종경기' 등 영암과 경북 포항, 충남 태안에서 열린 6차례의 철인3종경기를 주관하면서 참가 선수들이 받은 20~500만원의 상금 중 일부를 떼어내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상금에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상금의 22%를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수 42명에게 모두 1357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씨는 이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은 세금 명목으로 상금이 횡령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환수 조치를 위해 해당 세무서에 횡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년간 후배 여중생 금품갈취 일진 8명 입건

술·담배 심부름도 시켜

목포경찰은 17일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목포 모 여자중학교 3학년 김모(14)양 등 '일진' 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양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후배 여중생 12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1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년 후배들에게 담배와 술 심부름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첩보 등을 통해 추가 피해학생과 또 다른 일진의 존재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yousou@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